

테마칼럼

문학의 세계

광주3030

디자인 세상

교육의 마당

앙드레 김 '공화국'



이난경

최근 들어 브랜드의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기업들이 자사의 브랜드보다는 앙드레 김이라는 알려진 브랜드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영향이 미치는 등 위험요소가 수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 제3의 '이영애'는 지금도 계속된다.

비단 이런 일은 광고 뿐만이 아니다. 무한도전이라는 오락프로 하나가 성공하니 겹겹이 출연에 비스한 포맷의 프로그램이 수도 없이 생겨난다. 옥수수 수염차가 성공하니 너도나도 만들어 2년 만에 10개의 제품이 생겼다. 이런 제품은 결국 몇 년 못가 상품권 전체가 외면당하고 만다.

여행을 다녀보면 지역마다 유명한 식당이 있는 곳엔 너도나도 원조라고 우기는 짬뽕 식당들이 몰려 있기 마련이다. 한 때 우리나라는 짬뽕의 왕국이 아니었던가. 지금은 중국에 자리를 내주었지만 한국인의 따라하기 습성은 부동산 투기, 문자마 투자에서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 또 하나의 사례가 앙드레 김이다. '한국 패션의 선구자 개척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앙드레 김은 연예인이거나 사회 유명인사를 이용한 이벤트 마케팅과 홍보로 자신의 브랜드가

치를 유지하는데 천재적인 감각을 보여주었다. 비록 그가 만드는 옷이 쇼를 위한 무대 의상에 지나지 않지만 말이다.

최근 들어 브랜드의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기업들이 자사의 브랜드보다는 앙드레 김이라는 알려진 브랜드를 활용한 라이센싱 전략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광주의 모 조방업체가 시작한 뒤 안경테, 숙우, 도자기, 냉장고, 에어컨, 신용카드 등 앙드레 김의 라이센싱 영역이 전방위로 확장되고 있다.

문제는 앙드레 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략을 채택하는 기업에게 있다. 상품의 이미지는 곧 브랜드 이미지이자 기업의 이미지다.

앙드레 김의 유럽 바로크풍 장식디자인이 그 기업과 제품의 이미지에 맞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유행처럼 너도나도 라이센싱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키울 기회를 잃어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앙드레 김은 연예인이거나 사회 유명인사를 이용한 이벤트 마케팅과 홍보로 자신의 브랜드가

국가균형발전위 폐지 '지방' 포기한 건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가 사실상 폐지될 운명에 처했다. 정부는 균발위의 명칭을 '지역발전위원회'로 바꾸고 균형발전의 정책 목표와 인적 구성 등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 정부가 다시 균발위의 사실상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지방을 포기하겠다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올 하반기 균발위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법령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혁신·기업·행복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됐다.

국균발발전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붕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나온 국가정책이다. 수십년간 심화되어 온 국토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는 구체적 대안이 무산되면 지방의 축은 무너진다.

균발위는 올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폐지키로 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2월 20일 정부조직법 개편안

지문과 같다. 정부는 아무리 성장과 실용이 중요해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본틀을 무너뜨려선 안 된다.

태국·인도에도 밀린 우리의 국가경쟁력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추락하고 있어 큰 일이다. 스위스 국제경제개발연구원(IMD)이 15일 공개한 '세계 경쟁력 연감 2008'에 따르면 우리의 국가 경쟁력은 조사 대상 세계 55개 국가 가운데 31위에 머물렀다.

IMD의 지수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경쟁력 지표로 삼기에는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

아시아권에서도 하위권이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각각 2위와 3위를 유지했고 대만(13위), 중국(17위), 말레이시아(19위), 일본(22위), 태국(27위), 인도(29위) 등이 우리나라를 앞섰다.

하지만 IMD는 1989년부터 20년째 '세계 경쟁력 연감'을 발표하고 있다. 스위스의 싱크탱크인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별 경쟁력 평가보고서'와 함께 각각의 경쟁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정재훈. 어느 날 무릎이 아프다는 20대 남자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촬영한 MRI(자기공명영상법) 사진을 들고 찾아왔다. 그에게 언제부터 아팠느냐고 물었더니 1년 전에 축구를 하던 중 넘어져 지금까지 통증이 온다고 답했다.

기고 최경순. 올해도 어김없이 5월은 찾아왔다. 며칠 후 치러질 제28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준비에 여념이 없지만 필자 또한 한그루 이팝나무가 되어 해마다 잊지 않고 찾아주는 고마운 분들에게 이팝나무의 향기를 선사한다.

잘 만난 의사, 잘못 만난 의사. 틀이 빠지는 느낌이 있으면서 쓰러져 무릎이 부은 상태로 다른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의 역시 같은 진단을 내리 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세계의 명소 꿈꾸는 국립 5·18 민주묘지. 대상자가 5차 보상을 기준으로 4천362명에 달하나 조성된 묘역은 784기에 불과하다. 향후 잔여 묘역은 220여기에 불과하다.

無等鼓. '배슬을 시키는 것이 단지 은택으로써 우대하기 위함만이 아니고 앞으로 그 재물을 쓰고자 함이라면, 그 능력을 해라라 직책을 제수해야 합니다. (중략) 지금의 국사는 마치 큰 병을 치른 뒤 원기가 아직 회복되지 못해 마디마디 아프고 저린 것 같아 한번 조심을 잘 못하면 곧바로 위급한 상태로까지 될 지경에 있습니다.

임신 여성 당뇨 급증...복부비만 예방 등 관리해야. 임신 7개월째인데 몸이 나른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임신중후군인가 싶어 병원에 갔다. 병원에서 놀랍게도 임신성 당뇨라는 진단을 받았다.

입양 어린이 인권 위해 파양도 법원에서 판결했으면. 최근 지인으로부터 파양 당한 아이와 보육원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7살짜리 아이가 입양간 지 1년 반만에 돌아왔다는 것이다.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